전주세계소리축제 포스터 · 키워드 공개

키워드 '로컬 프리즘: 시선의 확장' · 포스터 정체성 담아 강렬함 강조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이왕준, 이하 소리축제)가 21일 2024 소리축제의 공식 포스터와 키워드를 공개했다.

이날 소리축제에 따르면 올해 8월 여름 축제로 개최 시기를 옮김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소리축제만의 차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인 시도들을 꾀하고 있다. 올해 공식 포스터와 키워드는 이러한 소리축제의 아이덴티티를 담아낸 결과물로 강렬하게 표현해냈다.

△2024 소리축제 키워드 '로컬 프리즘: 시선의 확장'

올해 소리축제 키워드는 '로컬 프리즘: 시선의 확장(Local Prism: Enlarging Perspectives)'이다.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공연예술 제로서 소리축제의 정체성을 선언적으로 표방하며, 전북예술과 예술가를 주요 키워드로 삼아 글로벌적 시선부터 시대, 세대, 장르, 지역적 해석의 시선까지 다양한 프리즘으로 탐구하고자 했다.

소리축제의 '로컬'은 지역의 연결성과 전체로의 확장, 예술가와 관객의 문화적 상호학습, 다양한 예술가들의 협력과 문화적 대화, 전통에 뿌리를 둔 근원적 탐구와 변형을 위한 혁신과 실험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로컬을 다양한 프리즘으로 반사, 즉 로컬을 다양한 혹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를 통해 새로운 지평으로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다른 로컬음악(월드뮤직)과의 대화와 다른 음악 장르(클래식, 대중음악)와의 만남을 통해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전하고자 하며, '전북예술'을 확장된 시각으로 다채롭게 해석해 우리에게 전해진 귀한 전통의 가치와 동시대적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다.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 공식 포스터

△소리축제 아이덴티티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표현한 2024 포스터

2024 포스터는 'SORI' 각 글자에 의미를 담아내어 도형으로 형상화한 소리축제 로고의 도형을 활용하고 키워드인 '로컬 프리즘'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소리축제의 정체성을 강렬하게 표현했다.

소리축제 로고는 전통과 현대의 이어짐을 형상화한 'S', 널리 퍼져나가는 우리 소리의 이미지를 담아낸 'O', 한국의 전통매듭을 차용한 문양으로 전통과 동시대, 지역과 세대, 한국과 세계가 축제의 장 안에서 화합하는 의미를 담은 'R', 동시대 한국의 소리를 미래로 확장하겠다는 소리축제의 의지를 디지털 이미지로 표현한 'I'로 구성돼 있다. 소리축제는 소리축제만의 독보성과 고유성을 갖기 위해 노력해왔고, 로고는 이러한 정체성을 잘 담아냈다.

올해 포스터는 소리축제의 브랜딩을 위해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시각적인 디자인으로 표현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8월 여름에 축제가 개최되는 만큼 축제를 더욱 핫하게 즐겨보자는 콘셉트의 붉은 계열 색상을 통해 뜨거운 강렬함을 강조했다.

김희선 집행위원장은 "8월 여름 축제로 개최되는 올해 소리축제는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통해 소리축제가 가진 독보성을 차별화 해 선보일 계획"이라며 "한국예술의 원류로서 전북예술과 예술가를 핵심 키워드로 로컬의 범주를 재규정하고 다각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를 통해 로컬 내 새로운 물결과 실천적인 변화가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예술가와 미래의 관객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소리축제는 오는 8월 14~18일 닷새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에서 개최된다.

/장은성 기자

치유 ·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포럼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산업 발전 · 활성화 방안 모색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21일 오후 라한호텔에서 '더 특별한 치유·의료관광산업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전북자치도 치유·의료관광산업의 발전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도내 치유·의료관광 얼라이언스, 전문가, 관심 인원과 치유 관광지 각 시·군 담당자, 그리고 관광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초청된 국내 치유·의료관광 전문가의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치유·의료관광 산업의 동향과 정책 방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전북형 치유·의료관광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포럼은 사)한국웰니스관광협회 최희정 회장의 '치유산업 현황 및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유지윤 연구위원의 '치유·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정책 방향', 원광디지털대학교 웰니스문화관광학과 유숙희 교수의 '전북형 치유·의료관광산업 발전 방안'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 이후에도 △정책/제도, △전통/생활문화, △자연치유, △음식치유, △치유·의료관광 융복합, △시·군별 치유관광산업 전략 등 총 6개 분야별로 라운드 테이블을 구성해 전문가, 운영자, 시·군 등 분야별로 전북 치유·의료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전북자치도만의 치유·의료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역할과 방향을 모색해 전북자치도 치유·의료관광산업 발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문화재단, 예술가와 떠나는 생태관광 서포터즈 모집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오는 29일까지 '2024 예술가와 떠나는 생태관광'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여행을 함께 탐구할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서포터즈 '전주여행친구들(가칭)'을 통해 전주의 생태 및 예술 자원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다.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환경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여행을 탐구한다.

선발인원은 10명 내외며, 생태 및 예술에 관심 있는 만 18세 이상의 전북특별자치도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전주여행친구들'은 총 8회 오프라인 교육과 3회 1박 2일 여행에 참여하며, 활동 과정 수료 시 최대 50만 원의 교육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전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etoby93@jjcf.or.kr)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미래전략팀(063-211-92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로컬 특화 여행상품 공모 선정 기업 협약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지난 17일 '2024 전북특별자치도 로컬 특화 여행상품 공모전'에 선정된 관광상품(5개 기업)을 대상으로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여행상품은 △'쉼드림'의 나 홀로 고창에 반하다, △'그린키킵' 달밤 술안(완)주_(부제)완주 전통주 테마여행, △'봉강요' 3마리 봉황을 따라 위봉산성마을을 걷다, △'올디' 전주 서체 및 기록문화자원 활용 온·오프라인 방 탈출 게임 제작, △'(유)로컬콘텐츠연구소' K-Culture와 함께하는 나 홀로 여행 등이다.

한편 로컬 특화 여행상품 공모전은 '전북 관광산업 개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전북관광기업제원센터에서는 5월부터 추가적으로 전통적 관광기업 지원 사업을 진행, 도내 관광기업의 사업 확장 및 신규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센터(063-230-4213)으로 확인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박물관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전주대학교 박물관은 오는 27일부터 '2024 찾아가는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도내 농어촌 및 문화소외지역의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무료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4 찾아가는 박물관'에서는 해당 학교를 방문한 학예연구사가 직접 들려주는 우리 지역 역사 이야기를 통해 토기복원으로 진행되는 고고학 체험 및 인장·민화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박현수 학예실장은 "많은 학생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박물관에 다가갈 수 있게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전북도가 가진 특색과 의미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지역혁신사업 공모 선정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2024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하 RIS 사업) 공모에 선정, K-한지마을 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전통문화·관광 생태계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자체와 대학 간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현안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 발전 생태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전당은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군장대학교 산업협력단과 천양피앤비(주)와의 협력 기반을 조성해 K-한지마을 자원을 활용한 전통한지의 지속적 계승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글로벌 수요 유입을 위한 전통문화 한지기반 교육 교류 프로그램 개발 △K-한지마을 연계 글로벌 전통문화 한지기반 교육 교류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관계기관 및 대학과의 연계·협력 관계 강화 △글로벌 전통문화·관광 콘텐츠 수요 유치 선순환 구조 주축 등이다.

이를 통해 △지역전통산업 발전 효과 △산업 현장형, 지역 맞춤형 교육 교류 콘텐츠 개발·운영 효과 △지속가능한 관광거점도시 활성화 효과 △전통문화·관광산업 혁신으로 인한 선순환 체계 확립 등의 효과를 도모할 예정이다.

김도영 원장은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지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힘을 더하기 위해 앞으로 조성될 K-한지마을 자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K-한지마을은 우리 지역이 글로벌 문화·관광 선도 도시로 도약함에 발판이 돼 지역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